

목회/설교에서의 AI 사용률, 2년 새 3배 이상(17%→58%) 급증!

바야흐로 'AI 일상화' 시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3명(75%)이 생성형 AI를 경험했으며(컨슈머인사이트), 10대부터 60대까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학업, 업무, 심지어 정서적 대화의 도구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은 담장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교회 목회 현장 역시 AI 도입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조사(AI, 목회 코파일럿)에 따르면 설교 사역에 AI를 활용하는 목회자 비율은 불과 2년 사이 17%에서 58%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목회자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설교 자료 수집, 성경 공부 준비, 기도문 작성 등 사역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목회자의 묵상 감소'라는 본질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역설적으로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성도들을 위한 'AI 맞춤형 신앙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AI는 항공기의 '코파일럿(부조종사)'과 같다. 비본질적인 행정과 자료 취합의 짐을 AI에게 맡길 수 있다면, 목회자는 비로소 성도를 향한 사랑과 깊은 영적 묵상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넘버즈 329호에서는 AI 기술이 한국 교회 목회자를 돕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변화의 변곡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넘버즈를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발행분부터 넘버즈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편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내용이 눈에 더 쏙쏙 들어오고 읽기 편하도록 전체적인 디자인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한층 더 보기 좋아진 넘버즈와 함께 이번 주도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I 관련 목회자/성도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개신교인(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한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조사 기간	2025년 5월 15일~2025년 5월 22일 (총 8일간)	2025년 5월 23일~2025년 5월 28일 (총 6일간)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일반국민 4명 중 3명(75%), '생성형 AI 사용 경험 있다!'

- 전 국민의 생성형 AI 이용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AI 일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사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공개한 '주례 생성형 AI 이용 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18~65세 성인 가운데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75%에 달했다.
- 특히 한 달에 1회 이상 사용하는 '활성 이용자' 비중이 61%에 육박해 AI가 일상적인 도구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용자 중 10명 중 1명꼴(13%)로 AI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I 이용 실태 (국내 18~65세 성인)



*출처: 연합뉴스, [AI픽] 한국 AI 이용자 5명 중 1명 "돈 내고 쓴다", 2026.02.26.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5073300017>)

AI 이용 목적, 업무(학업)용+정보검색!

- 연령별 AI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세대별 삶의 영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0대는 '학업용'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는 정보검색과 업무용 목적이 90%안팎으로 조사되어 실무적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 AI를 인식하고 있었다.
- 특히 60대의 경우 '대화용 응답'이 15%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AI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정서적 교감의 대상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연령별 AI 이용 목적 (2024, 생성형 AI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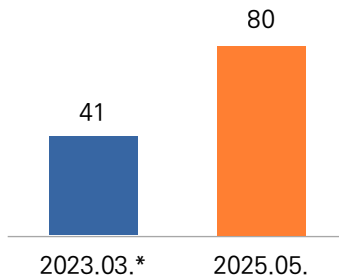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학업용 (68%)	정보검색 (38%)	업무용 (47%)	정보검색 (47%)	정보검색 (56%)	업무용 (49%)
2위	정보검색 (21%)	학업용 (28%)	정보검색 (47%)	업무용 (45%)	업무용 (32%)	정보검색 (32%)
3위	취미활동 (7%)	업무용 (23%)	취미활동 (4%)	취미활동 (4%)	취미활동 (9%)	대화용 (15%)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령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202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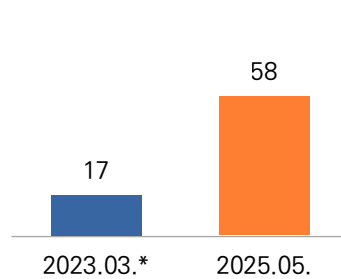
목회/설교에서의 AI 사용률, 2년 새 3배 이상(17%→58%) 증가!

- 목회자의 AI 사용률을 보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2023년 41%에서 2025년 8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설교를 위해 AI를 사용한 비율 또한 2023년 17%에서 2025년 58%로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목회자(담임목사) 절반 이상이 목회/설교를 위해 AI를 사용 중인 것이다.

[그림] AI 사용 여부(목회자, %)



[그림] AI 목회/설교 사용 여부(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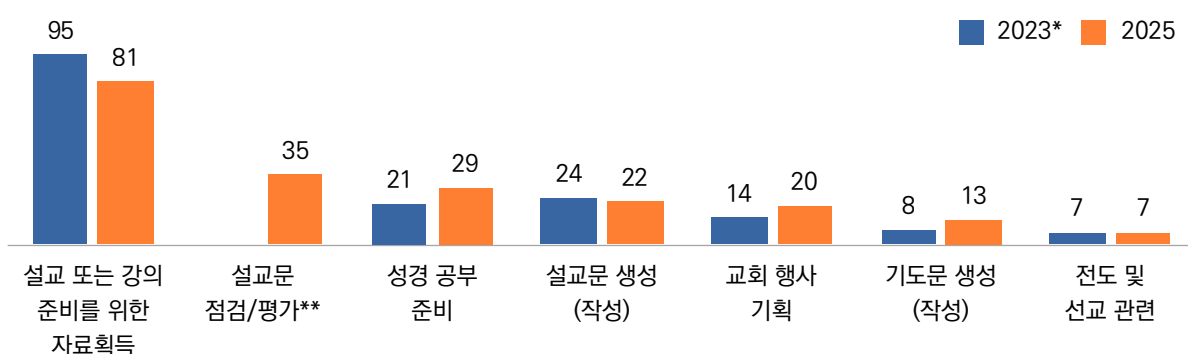


*2023년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목회자의 챗GPT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 조사', 2023.03.(전국 교회 담임목사 325명, 모바일조사, 2023.03.24.-03.25.)

자료 수집 넘어 성경공부·기도문까지...AI 활용 영역 목회 전반으로 확대!

- 목회/설교를 위해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분야에서 AI를 사용했는지 묻은 결과,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81%)이 가장 높았다.
- 주목할 점은 활용 양상의 변화다. 2023년 대비, '설교/강의 준비용 자료 획득' 비중은 약간 감소한 반면, 성경공부 준비(+8%p), 교회 행사 기획(+6%p), 기도문 생성(+5%p) 등 구체적인 콘텐츠 생성 및 기획 분야의 활용도는 일제히 상승했다.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AI 사용 사역(목회/설교를 위해 생성형 AI 사용 경험 목회자,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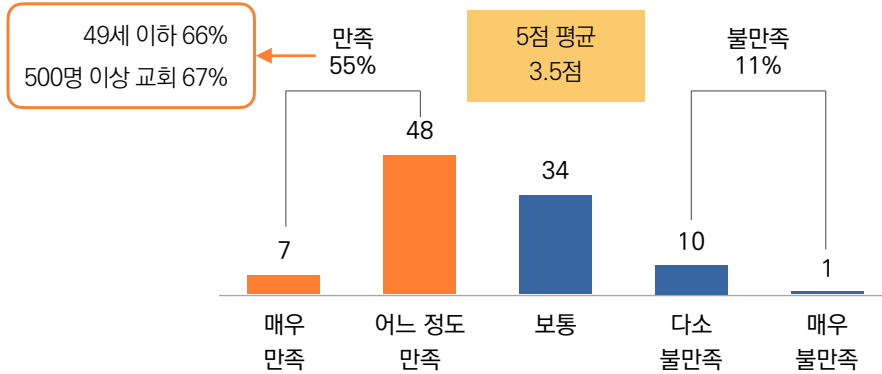
*2023년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목회자의 챗GPT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 조사', 2023.03.(전국 교회 담임목사 325명, 모바일조사, 2023.03.24.-03.25.)

**설교문 점검/평가는 2023년 보기에는 없음

목회/설교 위해 AI 활용 목회자, 아직까지는 만족도 높지 않아!

- 목회/설교에 AI를 사용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은 결과, 2명 중 1명꼴인 55%가 '만족한다'(매우+어느 정도)고 응답했다. 5점 만점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AI가 사역의 편의성은 높여주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목회자의 니즈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함을 시사한다.

[그림] 목회/설교에 AI 활용 시 만족도 평가(목회/설교 위해 생성형 AI 사용 경험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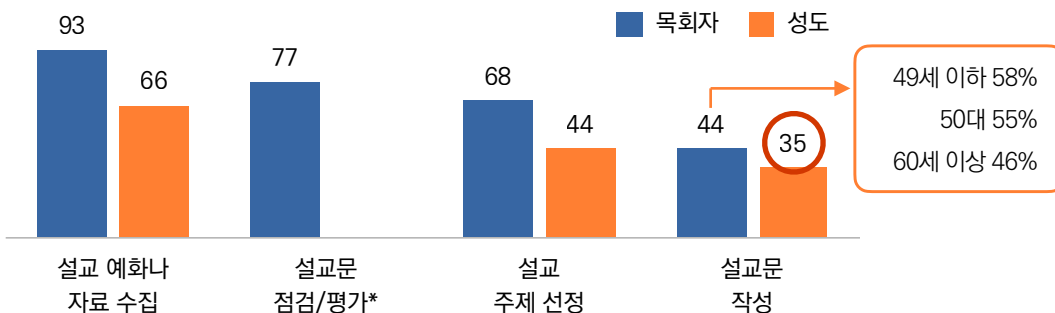
03

[설교 사역에서의 AI 활용과 인식]

AI로 설교문 작성, 성도들은 반대가 압도적!

- 설교문 준비와 작성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보다는 AI 활용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의 경우 목회자의 93%(성도 66%)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긍정률을 기록했다. '설교 주제 선정'에도 목회자(68%)가 성도(44%)보다 24%p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 다만 설교문 작성에서는 목회자의 44%만이 '적절하다'고 답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49세 이하(58%), 50대(55%) 목회자에서 60세 이상(46%) 대비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AI 설교 준비/작성에 대해 훨씬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도들의 경우 AI로 설교문 작성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65%나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림] 설교문 준비/작성에 AI 활용 적절성 '적절하다' 비율 (AI로 설교 준비/작성 목회자, AI 이해하는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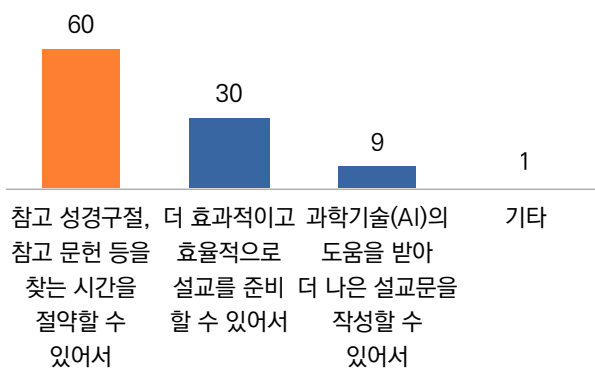


*설교문 점검/평가는 성도에게 질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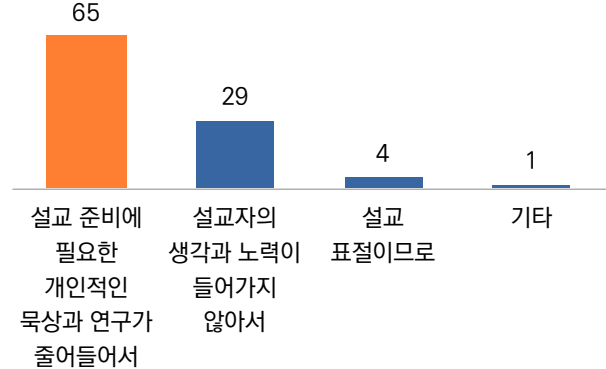
설교문 작성에 AI 사용, 반대 : '목회자의 개인 묵상 감소'!

- AI를 설교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회자들은 그 이유로 '참고 성경구절, 참고 문헌 등을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30%)가 뒤를 이었다. 즉, 찬성 측면에서는 AI를 사역의 속도와 질을 높여주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회자들은 그 이유로 '개인적 묵상과 연구가 줄어서'(65%)를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설교자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29%)가 뒤를 이었다. 이는 AI가 가져오는 편의성이 목회자의 개인 영적 사고력을 감소시키고, 사역적 태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설교문 작성에 AI 사용이 긍정적인 이유
(설교문 작성에 AI 사용 긍정 평가 목회자, %)



[그림] 설교문 작성에 AI 사용이 부정적인 이유
(설교문 작성에 AI 사용 부정 평가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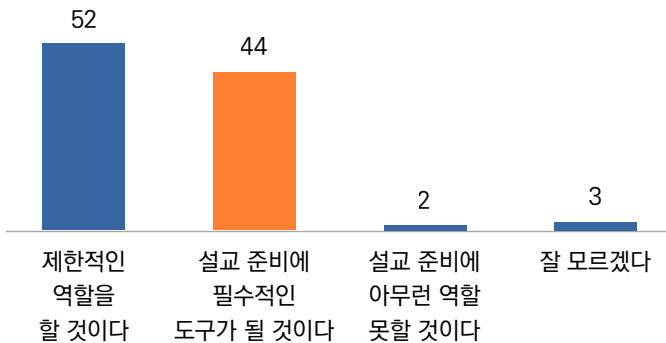
04

[향후 AI 활용 전망]

목회자 44%, AI 향후 설교 준비에 '필수적 도구될 것'!

- 향후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가 차지할 역할에 대해 목회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목회자의 절반 이상인 52%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44%로 나타나, 절반가까이의 목회자가 AI를 단순한 유행이 아닌, 향후 사역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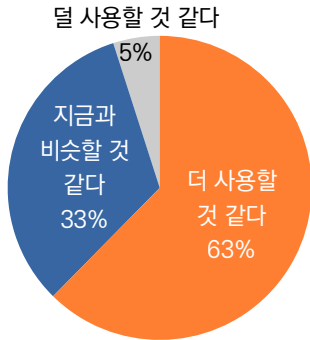
[그림] 설교 준비에 있어 AI의 향후 역할 전망 (목회자, %)



AI 써본 목회자 63%, '앞으로 AI 더 사용할 것'!

- 목회 및 설교를 위해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향후 AI를 목회나 설교에 더 사용할 것 같은지를 묻은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3%)이 '더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해, AI가 사역 현장에서 지속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반면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33%, '덜 사용할 것 같다'는 의견은 5%에 불과했다.

[그림] 향후 목회에서 AI 활용 빈도 예상 (목회/설교 위해 생성형 AI 사용 경험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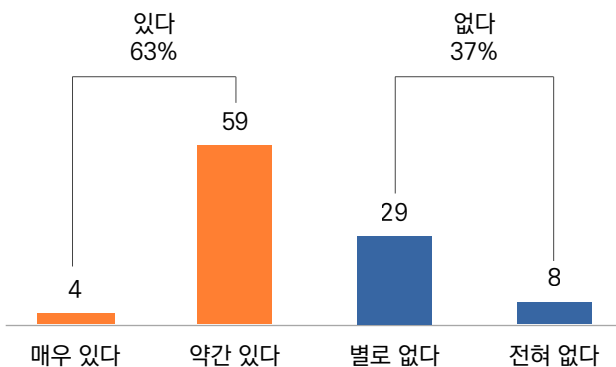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설교에 AI 활용 경험 없는 목회자, '앞으로 목회에서 AI 활용 의향 있다' 63%!

- 현재까지 목회나 설교 사역에 생성형 AI를 직접 도입하지 않았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었다. 일반적인 AI 사용 경험은 있으나 목회/설교 사역에는 활용해 본 적 없는 목회자의 63%가 '향후 목회에서 AI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그동안 AI의 목회적 활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상황을 관망하던 목회자 상당수가 실제 사역 현장으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활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37%)보다 1.7배가량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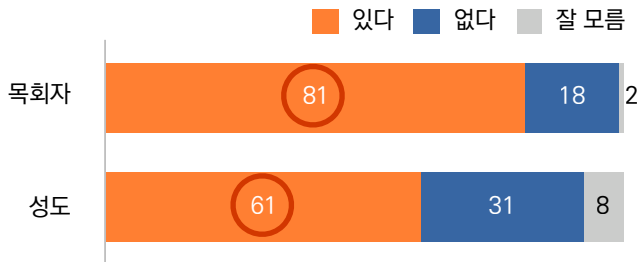
[그림] 향후 목회에서 AI 활용 의향 (AI 사용 경험 있으나 목회/설교 위해 생성형 AI 사용 경험 없는 목회자, %)



목회자 10명 중 8명(81%), AI 맞춤형 신앙서비스 도입하고 싶다

- 인공지능(AI)이 개개인의 신앙 수준과 영적 필요를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특히 목회자의 이용 의향은 81%로, 성도(61%)보다 20%p 더 높게 나타나 목회 현장에서의 AI 신앙서비스 도입에 대해 목회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신앙 서비스 이용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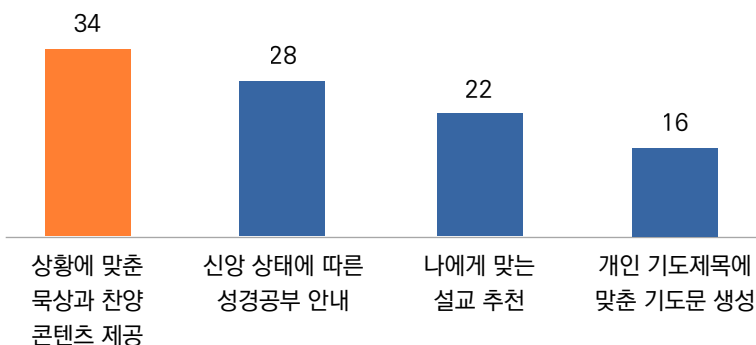
Note) 목회자 질문 : 인공지능(AI)이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신앙 수준, 관심사, 영적 필요를 파악하여 설교, 성경공부, 목상자료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목사님은 그 서비스를 목사님과 교회 목회에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도 질문 : 인공지능이 나의 신앙 수준, 관심사, 영적 필요를 파악하여 설교, 성경공부, 목상자료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귀하는 그 서비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원하는 AI 신앙 서비스 1위, '묵상/찬양 콘텐츠'(34%)!

- AI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을 AI 맞춤형 신앙 서비스 이용 의향자(성도)에게 물은 결과, '상황에 맞춘 묵상과 찬양 콘텐츠 제공'(34%)이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신앙 상태에 따른 성경공부 안내'(28%), '나에게 맞는 설교 추천'(22%) 순이었다.
- 성도들은 AI를 자신의 현재 영적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 맞춤형 영적 가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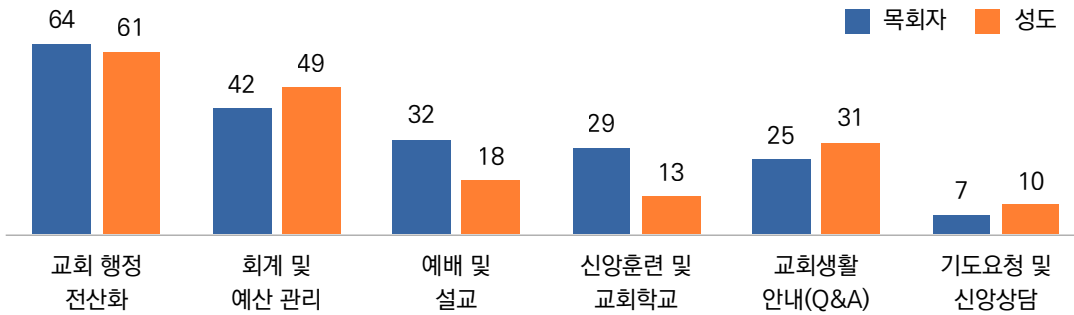
[그림] AI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 (AI 맞춤형 신앙 서비스 이용 의향있는 성도, %)



목회자/성도 모두, 향후 ‘교회 행정 전산화’에 AI 적극 활용 기대!

- 교회 내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분야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행정 전산화’(목회자 64%, 성도 61%)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회계 및 예산 관리’(목회자 42%, 성도 49%)도 공동 2순위였다.
- 두 그룹 모두 설교 등 핵심 사역 외 업무 부담을 주는 ‘행정’, ‘회계/재무’ 영역의 효율화를 위해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림] 향후 교회 내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분야(목회자 전체, AI 알고 있는 성도, 1+2순위, %)



이번호 요약

1. 목회/설교에서의 AI 사용률, 2년 새 3배 이상(17%→58%) 증가!

목회자가 목회/설교를 위해 AI를 사용한 비율은 2023년 17%에서 2025년 58%로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담임목사 절반 이상이 목회/설교를 위해 AI를 사용 중인 것이다.

2. 목회/설교 위해 AI 활용 목회자, 아직까지는 만족도 높지 않아!

목회/설교에 AI를 사용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묻은 결과, 2명 중 1명꼴인 55%가 '만족한다'(매우+어느 정도)고 응답했다. 5점 만점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3. 설교문 작성에 AI 사용, 반대 이유 : '목회자의 개인 묵상 감소'!

AI를 설교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회자들은 그 이유로 '개인적 묵상과 연구가 줄어서'(65%)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는 AI가 가져오는 편의성이 목회자의 개인 영적 사고력을 감소시키는 점을 많은 목회자가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AI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11가지 질문 (최윤식 외 4명 저, 생명의말씀사)

관련 성경 구절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Advisor)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잠언 24:6, 새번역)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AI 사용률의 폭발적 증가(17%→58%)라는 외형적 팽창 뒤에 숨겨진 목회자의 고민, 즉 '편의성'과 '영성적 깊이'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AI가 목회 현장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시대에, 교회가 기술의 파도를 타고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AI를 활용한 사역의 효율화를 통해 '목양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AI 도입의 목적은 설교 작성의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확보된 시간을 성도를 향한 '사랑의 돌봄'과 '깊은 영적 묵상'에 재투자하는 데 있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단순 자료 취합은 AI에게 맡기되, 목회자는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인 성도와의 교제/심방 그리고 기도라는 '본질'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둘째, '디지털 영성 훈련'을 통해 기술 오남용에 따른 '영적 사고력 저하'를 경계해야 한다. AI를 설교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 1위로 꼽힌 '개인적 묵상과 연구의 감소(65%)'는 AI 시대 목회자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 위협이다. AI가 제공하는 매끄러운 문장과 방대한 정보가 목회자의 치열한 신학적 연구·고찰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AI를 지혜롭게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더불어, 기술의 속도에 함몰되지 않는 '느린 묵상'과 '성경 필사', '침묵 기도' 등 전통적인 영성 형성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